

쉬쿤의 단편소설 「주방」과 「사랑을 만나다」 비교 연구

노승숙*

<目 次>

1. 서언
2. 본문
 - 1) 주방으로의 회귀
 - 2) 관계지향의 모순
 - 3) 비즈니스와 사랑
 - 4) 90년대와 지식 여성
3. 결어

1. 서언

중국 당대(當代) 문학의 여성 작가 쉬쿤(徐坤)은 우리에게 낯설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국 현대대 문학 연구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¹⁾ 그러나 중국 문단에서 그녀는 여성 작가로서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국 문단이 배출한 대표 신인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²⁾ 특히 1997년에 발표된 그녀의 단편소설 「주방(廚房)」³⁾은

* 신구대학교 비즈니스중국어과 조교수

1) 2015년에 쉬쿤의 소설작품 일부가 번역되어 『상수리나무 여관』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쉬쿤에 관한 학술논문은 박종숙, 「네 잎, 두 가지, 그리고 한 줄기 - 池子建·신경숙·徐坤·은희경 소설에 관하여」, 『중국현대문학』 제23호, 2002.와 김경남의 「쉬쿤 소설론」, 『외국문학』 49, 2013. 등으로 연구 성과가 많지 않다. 그러나 김경남의 「쉬쿤 소설론」은 쉬쿤의 작가생애와 소설의 전반적인 경향 및 주요 작품에 대한 내용분석을 비교적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다.

2) 張志忠, 『1993世紀末的喧嘩』,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7, 49쪽.

3) 1998년 『小說月報』의 “百花獎”을 수상하였으며, 「遭遇愛情」도 2년 전인 1996년에 같은 상을 수상하였다.

1990년대 후반 중국 여성 문학계에 작지 않은 반향을 불러오면서 다가올 21세기 중국 여성 문학과 여성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었다. 이미 상흔과 반사문학을 지나오면서 처절하게 회고되었던 신중국 건국 이후 나타난 여성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개혁개방의 세례를 받으면서 성장한 여성세대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그녀들이 안고 있는 또 다른 여성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화대혁명 전후 여성들은 슈퍼우먼(鐵姑娘)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가정 안에서는 여성이 말소된 전통적 어머니와 아내, 며느리의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였으며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여성 가치평가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였다.⁴⁾ 그러나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소위 “女強人”으로 불리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룬 여성들이 출현한다. 8, 90년대 중국 최고의 여배우 중 하나이며 기업인으로도 성공하여 엄청난 부를 쌓았던 리우샤오칭(劉曉慶)도 “作人難, 作女人更難, 作獨身女最難”⁵⁾이라고 말한 바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막연하게나마 그녀들이 이룬 찬란한 성공만큼이나 그 반대편 음지에 도사린 그들의 무게도 가볍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중국 대도시에서는 전통적 여성형상과 문화대혁명 전후 신중국의 여성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여성형상이 출현하고 있었다. 이들의 등장은 이제 막 여성성을 되찾아 가고 있는 여성의 자본주의적 욕망과 배금주의 사회가 만들어내고 있었던 새로운 여성형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쉬쿤은 「사랑을 만나다(遭遇愛情)」라는 단편소설에서 성공한 기업가인 남성을 주인공으로, 그가 감히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인과의 만남을 그리고 있다. 「주방」과 「사랑을 만나다」 이 두 단편소설은 각각 주인공이 여성과 남성이라는 점이 다르지만, 개혁개방으로 경제적인 격변기를 맞이하였던 중국의 대도시에서 성공만을 향해 달리던 중년 세대의 사랑과 욕망을 그려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쉬쿤이 ‘학자형 작가’라는 평가를 받았던 시기에 「사랑을 만나다」를 창작하였다면, 「주방」은 그녀의 ‘순수한 여성적 글쓰기’의 결과물로서 작가의 여성주의적인 면모를 처음으로 보여준 작품이다.⁶⁾ 전자는 ‘문화인’ 혹은

4) 줄고, 「공화국여성의 통제된 이성애 - 중국 17년 여성문학과 신시기 여성문학을 중심으로」, 『중국문화학회』 제34집, 2016, 150쪽.

5) 사람 노릇하기란 어렵지만, 여자로 살기는 더 어렵고, 독신여자로 살기가 제일 어렵다.

‘지식인’의 관점으로, 후자는 ‘페미니스트’의 관점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비슷한 환경의 여성과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성성(性性)이 달라짐으로 인해 사랑이라는 욕망의 주제에 대해 그들의 반응은 각기 어떻게 달랐는가? 뒤늦게 찾아온 자본주의의 세례는 양성(兩性)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와 더불어 『사랑을 만나다』에서 주인공 남성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등장하는 여성 인물이 『주방』의 여주인공과는 대척점에서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그 의미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 두 편의 소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1990년대라는 당시 중국의 사회적 배경과 여성의 젠더 정체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그녀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가 이전 세대와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차이점도 파악하고자 한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 사회는 90년대라는 개혁개방의 두 번째 10년의 변화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 시기의 자본주의 체제는 본격적으로 사회 일반으로 침식해 들어가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잔존하는 전통적인 성 역할 논리 그리고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경제체제가 잉태한 특수한 사회문화적 상황 아래 여성은 어떠한 고민을 안고 있었는지 고찰해보는 시도가 될 것이다.

2. 본문

1) 주방(7)으로의 회귀

『주방』은 화상(畫商)인 즈즈(枝子)가 사업상의 파트너인 화가 송저(松澤)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송저의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저녁식사를 하는 하루

6) 王光東, 『徐坤小說論』, 『小說評論』, 陝西, 西安, 1998, 4期, 41쪽.

7) “여성이 채집한 음식들은 노동집약적이었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남성들은 운동 삼아, 의식적인 행위로 수렵활동을 했다. 여성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절하는 인류의 문명화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여성은 영양공급에 있어서 전적인 책임감만 있고 지배권은 없는 텔레마에 부딪힌다.” 여성이 채집한 식자재들이 가공되는 공간으로서의 주방도 여성

저녁에 일어나는 일련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의 공간이었던 주방도 대약진운동으로 말미암아 사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역사를 겪기도 하였다. 주방 도구마저 모두 무리한 '철 생산'에 동원되면서 개인의 사적인 주방은 사라지고 마을 단위의 공동식당이 만들어지게 되자 주방은 공유의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은 주방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주방에서 벗어난 여성의 노동력은 대약진운동의 용광로 속으로 새롭게 흡수되어 버렸다. 즉 잉여의 여성노동력은 철 생산이나 인민공사의 공동경작 그리고 대규모 토목공사에 동원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 역사 속에서 주방이란 공간은 사회주의 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일시적으로 소멸되어 버리는 운명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개혁개방시대를 살고 있는 여주인공은 과거의 '전통적 어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적인 공간인 주방에서 한 남자를 위해 요리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스스로 절실히 위해서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요리를 하는 여성은 원초적인 행복감을 느끼면서 전통적 여성의 공간으로 회귀해 버린 것이다. 여주인공이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 남자는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상황은 단순히 주방이라는 공간으로의 회귀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남녀관계로의 회귀를 상징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중년의 여성이 이제는 오히려 따뜻한 가정 안에서 안정과 만족감을 느끼고 싶었던 것이다. 정성스럽게 장만한 음식을 통해 자신의 진실한 사랑과 더불어 전통적 반려자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가부장적인 여성다움을 가진 여성일수록 가부장적인 남성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⁸⁾는 즈즈의 행동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동안 자발적으로 주방을 외면한 행위가 사회적 성 역할 논리에 대한 항거였다면, 그 공간으로의 회귀는 사회적 성 역할 논리를 수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즈즈는 도움을 주겠다는 송저를 거실로 몰아내고 온전히 주방을 독차지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를 전통적 부

들에게는 책임감만 주었을 뿐 권력을 주지 못했다. 저메인 그리어 지음, 박여진 옮김, 『완전한 여성』, 서울, 도서출판 텍스트, 2017, 89-90쪽.

8) 또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규정된 여성다움에 자기를 동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소원·김관우, 「중년기·노년기 여성들의 경험적 성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서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제46권 제2호, 2015, 130쪽.

부의 역할 관계에 이입시킨다. 비즈니스타자를 두고 경제 권력 관계의 기초위에 마주하였던 두 사람의 공간이 주방과 거실로 이동하면서 그들의 권력 관계도 뒤바뀌게 된다.

이 두 남녀는 성공한 화상과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화가라는 다분히 주종(主從)의 권력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여주인공이 남자의 주방을 차지하고 혼자 분주히 생일 음식을 준비하는 행위는, 공적인 권력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적인 권력 관계를 재배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성을 얻고자 하기보다는 사랑을 회구하는 여자로서 기꺼이 '종(從)'의 위치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즈즈의 이러한 호의로 인해 남자에게도 현실적인 권력 관계가 일시에 허물어질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어제까지 원만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여성을 연인으로 받아들이자면 그로 인해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한 셈이 복잡하다. 즈즈를 사적 영역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현재의 우호적인 관계를 공적인 영역에서 그대로 유지하느냐는 일방적으로 쑹저의 선택에 달려있었다. 즈즈가 만든 음식은 훌륭했으며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남자는 굳이 욕망과 비즈니스를 섞어 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았던 것과는 상관없이, 남자는 끝까지 공적인 관계를 허물지는 않는다. 단순 명료하게 그를 추종하는 젊은 여성들은 얼마든지 있었으니 말이다. 여사장이 직접 생일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일 저녁 시간을 온전히 할애한 이유는 미래를 위해 비즈니스적인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공한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의 측면에서 쑹저를 관찰해보자면, 이미 상당한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즈즈는 그다지 환영받을 수 없는 '연인'이다. 왜냐하면 성역할논리에 충실한 남성일수록 성 역할 논리에 위배되는 여성은 여자답지 못한 여성이며 배우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시각을 달리해 사회적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여성의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여성이 성공을 두려워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남성의 기피 대상이 된다는 사회적 편견에 기인하고 있으며, 90년대 중국에서도 이 사실은 여전히 유효했다. 실제로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력이 우월하다면 이 커플은 상당한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최근까지도 남성 소득이 더 많은 일반적인 커플보다 이혼율이 20% 더 높다고 한다.⁹⁾ 그래서 즈즈에게는 선뜻 자신의 성공을 내려놓는 양처(良妻)퍼포먼스가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2) 관계 지향의 모순

생일 음식에 곁들여진 포도주가 안겨준 취기에 휩싸인 두 남녀는 낭만적인 입맞춤을 하게 되지만 여성의 걱정 앞에서 남성은 흠칫 놀라며 멈추어 서버리고 만다. 두 사람의 입맞춤이 조금 더 가벼웠으면 어땠을까? ‘이 여자는 진심이구나’라고 느껴지는 순간 쑥저의 달뜬 감성은 순식간에 식어버리고,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원만하게 수습할 수 있을까?’라는 명제만이 남자의 숙제로 남았다.

이렇게 몇 번의 입맞춤과 포옹이 지나가고나니 어느새 밤도 꽤나 깊었다. 여자가 또 한 번 남자의 품에 안겨들어 그의 멋진 바리톤 목소리에 취해있을 때, 그녀는 그가 그녀의 귓볼을 물면서 잔뜩 젖은 혀소리로 귓가에 당부하는 소리를 들었다: “어, 저기말이에요, 벌써 두시네요. 이제 집에 모셔다 드려야겠어요.”¹⁰⁾

여인은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남자는 일어나 무심하게 옷장에서 외투를 꺼낸다. 그러자 여자는 남자가 만류할 틈도 없이 짐짓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음식뒷정리를 시작한다. 마치 하이힐굽이 부러지도록 넘어지고도 곧바로 벌떡 일어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절뚝이며 걸어가는 여인이 안쓰러워 보이는 것처럼, 큰소리로 그릇들을 넣어 둘 자리를 물어오는 즈즈의 목소리가 사뭇 처연하다. 남성과 정서적 유대가 없었다는 관계의 기초에서

9) 안희경 지음, 『어크로스 페미니즘』, 경기, ㈜글 향아리, 2017, 112쪽.

10) “這樣玩着鬧着，几个大起大落下去，不知不覺，夜已經深了。当女人又一次滾倒在他的怀中，沉醉于他中音共鳴區的聲情并茂時，却听得他咬着她的耳垂，以一种濕漉漉的舌音在耳邊叮嚀：‘哎哎，你看，已經兩點鐘了，我該送你回去了。’” 徐坤，「廚房」，『含情脉脉』，天津，百花文藝出版社，1999，20쪽。

여성의 제안이 들면 거절당했을 때, 내상(內傷)을 감추는 제스처의 이면에는 관계파탄의 두려움¹¹⁾이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중년여성들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는 있으나 애정 생활의 리더는 남성이라고 인식¹²⁾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가 거절당했을 때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즈즈 역시 화장실에서 키스로 얼룩진 화장을 고치고 애써 평정심을 되찾은 다음에는, 마지막 뒷정리라고 할 수 있는 주방의 쓰레기봉투까지 챙겨서 남자의 집을 나선다.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봉투, 여자는 자신의 아파트 계단을 오르려 할 때 비로소 쓰레기봉투를 여전히 손에 꼭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다양각색의 채소와 붉은 고기를 칼질하는 소리는 경쾌하게 도마 위에 울리고, 뜨거운 팬 안에서 파열음을 내며 재료들이 익어가는 오후 내내 여자는 주방에서 행복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버려져야 할 음식 쓰레기뿐이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이지만 남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거의 여성형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식의 한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¹³⁾ 문화대혁명 이후 여성성을 회복하려는 문제의식은 신중국 건국 이전인 신여성 시대의 '여성의 발견'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80년대 중국에서는 서구의 페미니즘이 급속하게 확산되었지만, 동시에 자본에 의한 여성의 성 상품화도 새롭게 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되었다. 문제는 어떤 형태로 여성성을 회복할 것이며, 여성성을 회복한 이후 중국 여성이 지향하는 여성형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자본주의가 더 빠르게 파급되면서 중국 도시사회의 지형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즈즈의 행동이 특히 젠더 정체성에 있어서 낮은 '메타인지력'¹⁴⁾을 보여주고 있다

11) 해리엇 러너 지음, 이명선 옮김, 『무엇이 여자를 분노하게 만드는가 - 무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페미니즘 심리학』, 서울, 부키(주), 2018, 137-139쪽.
 12) 이소원·김찬우, 「중년기·노년기 여성들의 경험적 성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서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제46권 제2호, 2015, 133쪽.
 13) 이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세기말의 중국문학이 주변화되었던 배경 하에서, 여성문학도 중심에 설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하고, 또한 개혁개방이후 부권제사회는 더욱 강력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견해도 있다. 黃素華, 「当代女性書寫中的“家”情節」, 『浙江工商職業技術學院學報』, 浙江, 宁波, 2002, 9쪽.
 14) 메타인지력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능력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도

는 것은, 당시의 여성들이 90년대에 적합한 젠더 정체성을 갖지 못했다는 반증이다.¹⁵⁾ 또한 여성성의 회복이 전통적 여성의 성 역할로의 회귀로 나타나는 아이러니는 여성 스스로 새로운 '젠더 정체성 찾기'과정에서 일정 부분 길을 잃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치마를 두른 채 가스불의 열기로 두 볼이 빨그레 상기되어 요리를 하던 여자는 어두운 밤 불어오는 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들고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개혁개방이 가져다준 자본주의라는 쟁점이 여성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지식 여성이 자본이라는 경쟁력까지 갖추었을 때 그녀들의 고민은 문화대혁명이 막 끝나고 여성성 회복이라는 문제의 식에서 진일보하여 새로운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여주인공 즈즈는 더 이상 남성적이라서 여성성을 어필할 수 없었던 이전의 세대와는 다르다. 또한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해야 했던 신중국 이전의 전통적인 여성이나 신여성들과도 다르다. 이미 중국의 여성 문제에는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범위를 벗어나 자본주의사회의 여성 문제의 요소도 급속히 섞여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비즈니스와 사랑

「사랑을 만나다」의 다오춘(島村)은 「주방」의 즈즈처럼 경제력을 갖춘 중년의 이혼 남성이다. 그러나 즈즈가 여성적인 면모를 보여주면서 송저에게 자신의 애정을 드러내 보였던 것과는 달리, 다오춘은 영상물 계약을 위해 만났지만 사랑하게 된 메이(梅)에게, 시종 거래 관계에서 우월한 '갑'의 입장을 견지한다. 90년대 중국 도시사회에서 경제력을 갖춘 남성은 자본주의적인 권력까지도 장악한 남성으

로 관찰한 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거나 제어하는 것이다. 나카노 노부코 지음, 김해용 옮김, 『우리는 차별하기 위해 태어났다』, 서울, (주)동양북스, 2018, 128-129.

15) 1996년 한국에서 발표된 여성성공에 관한 논문은 한국의 신세대여성, 젊은 주부층, 중년 주부층은 대체로 여성에게 '일'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었으나, 만일 현실적 조건과 충돌될 때는 여성에게는 역시 '사랑과 결혼'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여성들 역시 일, 사랑,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 상당한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정희, 「여성성공담의 유행과 페미니즘의 현주소」, 『여성과 사회』, 서울, 제7호, 1996.

로서, 그들이 가진 기존의 남성적 권력에 더해진 경제 권력은 남성의 젠더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즈즈의 경제력이 그녀의 젠더 정체성과 충돌하고 있다면, 다오춘의 경제력은 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공화국 남성에게 오히려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전통적인 남성의 젠더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다. 신중국 건국 이후 사회주의 체제하에 중국 남성들이 잃었던 경제 권력은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 도입에 힘입어 이렇게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남성의 성 역할 논리가 여전히 유효한 중국 사회이지만 同工同酬(공산주의 경제에서 여성과 남성이 같은 노동에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을 뜻함)에 근거해 과거에 그들이 누렸던 경제 독점의 기반을 잃었던 남성들은 이제 경제 권력의 회복과 함께 성적 권력의 회복도 맞이하고 있었다.¹⁶⁾

즈즈의 성공이 기피되는 것과는 달리, 자신의 우월한 위치가 메이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다오춘은 굳이 직접적인 구애를 시도하지 않는다. 이 둘의 만남이 비록 비즈니스를 위한 회동이었지만 아름다운 메이와의 저녁 식사와 산책은 다오춘으로 하여금 잊고 있었던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였기 때문에, 다오춘은 ‘고상한 사랑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를 취할 뿐이었다. 다른 여성들과 유희적 관계를 맺기 위해 사용되었던 ‘기교’들은 감히 사랑이라 명명한 메이와의 관계에서는 허용될 수 없었다. 쑹저가 진지한 즈즈를 부담스러워 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감정이다. 그러나 다오춘도 메이를 만나기 전에는 쑹저처럼 여성을 철저하게 욕망의 대상으로서만 인식하였다. 성행위를 단순히 배설과 동일시하는 자신에게 진정한 사랑의 감정이 싹틀 수 있을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¹⁷⁾는 다오춘의 고백은 어쩌면 쑹저보다 더 심각하게 여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금전 때문에 여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이 모두 망가져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다오춘이

16) 실제로 남성의 경제력은 배우자 선택의 일 순위가 되었으며, 박봉의 급여보다는 재력과가의 결혼을 통해 하루아침에 경제적 신분상승을 노리는 여성들과 열나이(二奶) 등이 대거 출현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대두되고 있는 중국 내 사회문제들은 모두 남성의 급속한 경제 권력의 강화와 연관되어 있다.

17) “他也不知道自己這般視上床如入廁的人心中是否還會有什麼真正的愛情萌生。”，徐坤，『遭遇愛情』，『含情脈脈』，天津，百花文藝出版社，1999，393쪽.

메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것이다.

송저에게 여성으로서 선택되기를 갈망하는 즈즈의 구애가 애절했던 것에 반해 다오춘은 메이의 사랑을 얻기 위해 굳이 '거실에 앉아 있는' 자신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면 자신의 여성적 매력을 비즈니스에 십분 활용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영리한 여성 메이에게 다오춘은 일방적으로 이용당하고 말았던 것일까? 소설은 결말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급반전을 이루면서 앞서 기승전의 내용들을 다시 곱씹어 보게 하고 있다. 마치 메이의 마지막 선택이 비즈니스 테이블에 머무는지 아니면 주방으로 향하는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오춘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처럼 말이다.

메이양, 당신의 사업성공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텍스트복제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제가 “발행권”이라는 글자를 써넣는 것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구매한 것은 영상의 복제권일 뿐 발행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상이나 음반을 카피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 비교적 완전한 계약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메이(梅)양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의사가 있을지 모르겠군요?

수화기 안에서는 순간 소리 없는 정적이 흘렀다. 다오춘은 마치 메이의 그 울고 싶지만 울 수 없는 눈빛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속으로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히려 씩씩했다.¹⁸⁾

다오춘이 이러한 계약관계의 세부사항을 알리려고 메이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 더 이상의 부드러운 교태는 없었다. 메이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얻어낸 계약서가 쓸모없는 종잇조각이 되어버리는 순간이다. 메이는 비즈니스 테이블을 거쳐 다오춘의 주방으로 오려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다오춘과 즈즈 두 중년의 사랑은 모두 실패로 끝나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다오춘이 전화를 끊고 느꼈던 끝없는 허망함은 즈즈의 진심이 한 꾸러미의 쓰레기로 남겨진 것과는 다른

18) “梅小姐，祝賀您生意取得成功。我要告訴您的是，在复制合同文本時，我忘了把“發行權”字樣打上了。就是說，您購買的只是影帶的复制權，却沒有發行權。您有權拷貝出一卷卷的膠片或磁帶，却不可以拿到市場上出售發行。我重新準備了一份比較完備的合同，不知梅小姐是否愿意一切從頭再來？”徐坤，《遭遇愛情》，『含情脉脉』，天津，百花文藝出版社，1999，407쪽.

의미를 갖는다. 메이와의 관계에서 사적인 감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다오춘은 메이의 목적을 완벽하게 비틀어버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공적인 영역을 지키는 것은 물론 메이의 계략에도 시원하게 복수하게 된다. 반면 즈즈의 쓰레기는 공적인 영역에 사적인 감정을 이입한 결과 공사 모두의 영역에 남은 참담한 상처의 상징이다.

우리는 두 사람의 실패 원인이 서로 다르며 결과 또한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적 영역인 일의 세계에 여성의 참여가 늘어나며, 이와 함께 가족생활에서 남성의 책임이 늘어나는 것을 '젠더 혁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다분히 양성결합의 가정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이 독신의 상태로 서로의 젠더를 동등하게 바라보고 각각의 다면적인 역할을 인정할 수는 없을까?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는 한 여성의 공적 영역에서의 성공과 사적 영역에서의 사랑은 양립하기 어렵다. 자본주의가 가져다준 경제적 풍요는 공적 영역에서는 여성에게 남성다움을 요구하지만, 사적 영역에서는 여전히 여성답기를 요구함으로써 여성의 삶에 근본적인 괴리감을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것은 가부장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남성다움을 교육받아온 남성이 가사와 육아에서 무능하기¹⁹⁾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자면 잘하고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되는 것도 동일한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한다. 젠더 혁명은 가정이라는 제도의 편입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과 남성이 조화롭게 살기 위한 기본환경을 담보할 때에 비로소 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4) 90년대와 지식 여성

현대 여성 문학에서 등장하는 지식 여성들은 대부분 작가, 의사 그리고 교사나

19) 남성적 사회에서 남자가 위협받는 순간은 그들이 여성화될 때이며, 남성의 여성화는 남자가 성공하겠다는 야망이 없음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학자 에바 일투즈는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남성성의 표준이라고 말한다. 안희경 지음 『어크로스 페미니즘』, 경기, ㈜글 향아리, 2017, 119쪽.

교수와 같은 교육 사업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 화가나 무용가 등 신교육을 받은 소수의 예술인 정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그전까지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상공업분야에 투신한 정규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 여성들과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 각 분야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상류층 화이트칼라의 여성들이 작품에 등장하게 된다. 여성의 활약이 이처럼 다양하고 눈부시게 발현되었던 시기는 이전의 역사에서는 아마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개혁개방이 시작된 지 근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은 사회가 주목할 만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중국 당대 여성 문학에 새로운 여성형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문혁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내고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이름답고 지적인 여성이 90년대에는 성공한 중년의 여성이 된 것이다. 즈즈는 바로 중국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여성의 전형이며, 즈즈의 형상이 사회주의 체제 안에 자본주의적 색채가 더욱 농후해지고 있었던 중국 사회, 특히 중국여성계에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져주었다는 점에서 작가의 예리한 통찰력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즈즈로 대변되는 90년대의 지식 여성들은 의도적으로 주방에서 떠났다. 평생 주방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교육을 받았고 남성이 전유하던 공적 영역에 뛰어들었다. 주방을 벗어난 즈즈는 전통적인 여성의 성 역할에서도 벗어나 사회적 성공을 거두며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즈즈가 사랑을 얻기 위해 남자의 집 주방을 일방적으로 차지하는 대신, 고급레스토랑에서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하였다면 어땠을까? 메이와 다오춘의 관계가 레스토랑에서 격식을 갖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즈즈와 차별성을 갖는다. 비즈니스상의 거래 관계라는 첫 대면을 통해서 메이는 다오춘에게 여성 특유의 부드러운 파트너쉽으로 다가간다. 그러나 다분히 거래의 전략이라는 불순함이 농후한 중년 남녀의 만남이 공과 사의 경계점을 모호하게 넘나들면서 다오춘에게는 사랑으로까지 받아들여진다는 설정은 독자들을 일순 당황스럽게 하기도 한다. 사랑의 전정함과 목적의식을 가진 전략적인 접근이 쉽사리 뒤섞이고 수용의 가치가 전도되는 양상은, 혼돈스러운 그들의 정체성만큼이나 어지럽고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가져다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오춘의 전혀 효력이 없는 거래계약서는 막바지 종착점에서 그들이 사는 시대를 충분히 대변하면서 어수선한 상황을 말끔하게 정리한다.

메이의 입장에서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어진 계약서는 즈즈의 쓰레기 꾸러미처럼 아무런 성과도 없이 무의미해진 감정의 찌꺼기에 불과하다. 그녀들은 모두 모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어필을 수단으로 삼았다. 그것이 사랑 그 자체를 얻기 위해서였든 아니면 업무상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든 간에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녀들은 얻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 색계(色戒)라는 단어는 고대부터 있었고 어쩌면 여성이 일반적으로 물화(物化)되었던 유가 사회에서는 더욱 빈번하게 등장하였으리라. 여성이 성적으로 남성화 내지는 중성화되었던 문화대혁명 시대에도, 여성은 배우자로서 가장 인기 있었던 군인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여성적인 면모를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군인 가족들은 가장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메이의 의도는 단지 1990년대의 상업화와 맞물려 그 범위가 조금 더 확장되어 현대적으로 변용되었을 뿐이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급속하게 팽창되었던 황금만능주의라는 사회적 배경에서도 메이와 같은 여성형상이 상당한 기시감을 가져다주는 이유이다. 동시에 서로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되었던 메이와 즈즈의 모습이 서로 오버랩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비교적 젊은 메이는 성공만을 위해 치열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오춘의 진심 어린 사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마치 젊은 날 사랑과 가정의 의미를 너무 과소평가하면서 성공에만 전념했던 즈즈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만약 중년을 맞이한 메이가 불현듯 따뜻한 가정이 그리워진다면, 그녀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21세기에 들어선 중국 여성 문학이 이 문제에 대한 탐색을 얼마나 깊이 있게 진행하였는지 살펴보는 후속 연구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 같다.

“개인들의 판단들과 이익들은 욕망들이 팽창하고 있고 재산의 불평등이 큰 상황에서 충돌하기 쉽다.”²⁰⁾ 라는 말은 본격적으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보다는 자본을 더 숭배하기 시작하는 1990년대의 중국을 이해하는 데 도

20) 캐롤 페이트먼 지음, 이평화·이성민 옮김, 『승화와 물화: 로크, 윌린, 그리고 정치적인 것의 자유민주주의적 개념』, 『여자들의 무질서』, 서울, 도서출판b, 2018, 168쪽.

움이 될 것이다. 즈즈의 고민은 자발적으로 독신을 선택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서 여전히 제기되는 문제들이다.²¹⁾ 어머니의 세대와는 작별을 고하고 자 아실현에 더 무게를 두었던 신중국의 여성이 자신의 인생에서 결핍을 느끼게 되는 순간 찾아드는 괴리감이다. 어머니 세대의 삶이 자신에게 결핍으로 나타나자, 즈즈는 과거의 어머니를 소환하기 위해 과거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 문제를 여성의 본성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느냐 아니면 과거 사회의 인습의 측면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해결법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측면에서 접근하든 상관없이 여성들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매스미디어를 대표주자로 하여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남성을 유혹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들은 전통적인 결혼제도에 여성이 편입해야 하는 당위성을 끊임없이 강조하여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엮어매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자본주의는 여전히 일터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젠더 구분을 약화하려 하는 반면에, 로맨틱한 사랑과 가족 구조는 아직도 강한 젠더 정체성위에 기초하고 있다.²²⁾ 만일 현실적인 요구로 인해 가정의 정의가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라는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여성의 욕망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새로운 가정과 가족관계에 대한 대안²³⁾이 필요하다고 여성학자들은 주장한다. 쉬쿤의 소설은 바로 새로운 세기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여성의 사회적 욕망과 애정의 욕망이 충돌하는 모순적인 현실에 기반하여, 가정이라는 최소 사회 구성단위의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21) “대상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힘은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지 그 대상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은 점차 나이가 들어갈수록 굴욕스럽지 않게 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성생활에 대한 끊임없는 압력이 오래된 번식의 압력을 대체했으며 실제 짝을 짓지 못할 위기에 처한 여성은 근심과 실패감에 휩싸인다.” 저메인 그리어 지음, 박여진 옮김, 『완전한 여성』, 서울, 도서출판 텍스트, 2017, 355쪽.

22) 안희경 지음, 『어크로스 페미니즘』, 경기, ㈜글 향아리, 2017, 114쪽.

23) 여성 사회학자 에바 일루즈는 “성적인 것뿐 아니라 우정과 로맨스가 혼합된 공동체 형식의 느슨한 가족구성”도 상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안희경 지음, 『어크로스 페미니즘』, 경기, ㈜글 향아리, 2017, 125쪽.

3. 결어

경제력이 권력으로 부상하던 시대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여성이 자발적으로 주방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과거 전통적인 여성으로 회귀를 연상시킨다. 숙명처럼 주어졌던 공간을 거부하였던 여성이 중년이 되어 다시 전통이 규정한 역할로 되돌아오고자 하는 것이다. 즈즈는 지식 여성이었으며 경제력도 겸비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봉건적인 여성들이 처한 상황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즈즈는 ‘여성의 발견’이 시작된 오사(五四)시기 이후 중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신여성과도 다르며, 여성미를 상실하고 남성화되었던 문화대혁명시대의 여성들과는 거의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즈즈는 1990년대 중국사회의 대도시라는 문화 환경 속에서 성장한 새로운 여성 집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사회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유가적 전통이라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치열한 계급투쟁의 소용돌이를 이제 막 벗어난 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결혼과 이혼을 경험하고, 90년대에는 성공한 사회인으로 성장한 여 주인공세대의 지식 여성들의 삶은 그 역사적 배경과 90년대의 중국 사회라는 공간적 상황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너무 빠르게 이루어진 자본의 달콤한 승리는 급속한 상업화를 통해 도시 생활의 지형도 바꾸어 놓았다. ‘주방으로의 회귀’ 부분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여성에게 가져다준 지식 여성의 경제적인 성공을 주방의 의미와 이 공간으로의 회귀가 가지는 의미를 통해 고찰해 보았다. 또한 여성현안의 한계이자 여성 문학 한계의 원인은 문학의 주변화와 그 와중에도 여전히 주변인이었던 여성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관계지향의 모순’에서는 문화대혁명이후 시작된 여성성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여성 정체성의 형성과정, 개혁개방이 안겨 준 자본주의의 풍요와 여전히 유효한 유가적 전통 속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배금주의로 얼룩진 대도시의 남녀관계에 파고든 금권과 성적 욕망의 부조화에 대해서는 ‘비즈니스와 사랑’에서 다루어 보았다. 마지막으로 ‘90년대와 지식 여성’에서는 90년대 사회문화의 특성과 그 시대가 잉태한 새로운 여성 집단과의 관계를 분

석해 보았다.

중국과 유가적 가부장제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을 전후해서 새로운 여성 집단이 주목받기 시작한다. 아마 '골드미스'라는 단어의 출현 배경에는 이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새로운 여성 집단을 구분하여 명명할 필요가 바탕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녀들은 전문지식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의 미혼여성(위키백과 참조)으로서, 과거의 교육수준이 떨어지고 궁핍했던 독신들과는 다르다가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골드미스의 소비구매력이라든가 쇼펍패턴 등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작 골드미스들이 왜 출현하게 되었는지, 그녀들이 안고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모순되는 현실이 개인의 문제이기 보다는 가부장제의 결혼제도에 근원하고 있다는 것에는 별반 관심이 없다. 한국 사회에서 그녀들은 그저 결혼 적령기를 놓친 능력 있는 노처녀들일 뿐이다. 중국 문학과 사회는 「주방」의 즈즈라는 인물형상을 통해서 새로운 여성 집단의 출현 배경과 그녀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역사와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통틀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식인이며 문학 연구자인 동시에 여성인 쉬쿤이 작가로서 노골적이며 솔직한 화법으로 던진 묵직한 화두가 중국 사회에 일으킨 파장이었다.

필자는 쉬쿤의 화두를 이어서 생각해본다. 중국 여성들의 모습은 유가적 전통을 기저로 하여 중국의 정치적 이념과 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거나 퇴보하거나 혹은 정체하기도 하였다. 그녀들의 발자취는 그 시대에 주어진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본질적인 생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과정이었다. 여성적 관점에서 조망되는 중국 여성 문학의 성장은 중국 여성 해방의 역사적 노정과 함께 하고 있다. 만약 메이이 즈즈처럼 성공한다면, 중년이 된 메이는 이제 더 이상 즈즈처럼 울지 않을 수 있을까? 21세기에 들어서면 중국 사회는 본격적으로 중산층이 등장하면서 개혁개방의 세 번째 십 년을 맞이하게 된다.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더욱 공고해지는 산업자본주의의 격랑 속에서 여성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공론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과제로 남겨 놓는다.

〈參考文獻〉

- 徐 坤, 『含情脉脉』,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9.
- 張志忠, 『1993世紀末的喧嘩』,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7.
- 王光東, 「徐坤小說論」, 『小說評論』, 陝西, 西安, 4期, 1998。
- 黃素華, 「當代女性書寫中的“家”情節」, 『浙江工商職業技術學院學報』, 浙江, 宁波, 2002.
- 캐롤 페이트먼 지음, 이평화·이성민 옮김, 「승화와 물화: 로크, 윌린, 그리고 정치적인 것의 자유민주주의적 개념」, 『여자들의 무질서』, 서울, 도서출판b, 2018.
- 저메인 그리어 지음, 박여진 옮김, 『완전한 여성』, 서울, 도서출판 텍스트, 2017.
- 해리엇 러너 지음, 이명선 옮김, 『무엇이 여자를 분노하게 만드는가 - 무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페미니즘 심리학』, 서울, 부키(주), 2018.
- 안희경 지음, 『어크로스 페미니즘』, 경기, ㈜ 글 향아리, 2017.
- 나카노 노부코 지음, 김해용 옮김, 『우리는 차별하기 위해 태어났다』, 서울, (주)동양북스, 2018.
- 이정희, 「여성성공담의 유행과 페미니즘의 현주소」, 『여성과 사회』, 서울, 제7호, 1996.
- 김경남, 「쉬쿤 徐坤 소설론」, 『외국문학연구』,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제49호, 2013.
- 이소원·김찬우, 「중년기·노년기 여성들의 경험적 성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서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제46권 제2호, 2015.

〈Abstract〉

Comparative Study of Xu Kun's Short Story 〈Chu Fang〉 and 〈Zao Yu Ai Qing〉

Lho, Sung-Sook

Xu Kun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new writers of the 90s in Chinese contemporary literature. Since the start of her literature work in 1993, she has created a work that focuses on the survival of intellectual class with a dual identity of scholars and writers. 〈Zao Yu Ai Qing〉 take the male character as the main

character, describes male-female relationships that are dominated by money in a commercialized Chinese society. She was generally regarded as a scholarly writer, but her short story the 〈Chu Fang〉, created in 1997, is evaluated as a work by a pure feminist writer.

Chinese society has been in the 90s, with the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the position of intellectuals has been pushed to the periphery of society. Of course, female literature has been pushed around more. This paper is based on the concept of 90s, which is a specific time frame set of space, would like to study how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has affected the gender identity of women and men.

In this paper, a comparative study of 〈Chu Fang〉 and 〈Zao Yu Ai Qing〉 was carried out in four parts, in the first chapter, discussed the return of knowledge women to the kitchen. A woman who refuses the kitchen returns to the kitchen for love but eventually is rejected by the men she loves. Through the study of Chapter 2, we can see that the success of women has a contradictory relation with the gender identity of women. In the third chapter,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and true love for divorced middle-age women. In the last chapter, learned about a new group of women who emerged as the background of Chinese society in the 90's.

Key words: Kitchen, Xu Kun, Gender identity, Female writer, Love

이 논문은 2019년 4월 25일에 접수되어 2019년 5월 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5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